

서산시환경대책위원회, ‘우리 환경은 우리 손으로’ 출범

서산시환경대책위원회(위원장 김준수, 이하 서한위)가 지난달 30일 서산세무서에 정식등록 절차 및 임원조직구성 등을 마무리하고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자연환경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조직된 서산시환경대책위원회는 첫 사업으로 지난 1993년 대산공단 환경영향조사 후 현재 공장신증설 및 많은 기업의 입주가 이뤄졌지만 무분별한 환경관리로 인해 서

산시가 환경오염에 노출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금강유역환경청장, 충남도지사, 서산시장에게 서산시 공단 주변에 대한 종합환경영향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현재 서산시 공단(대산석유화학공단, 서산테크노밸리, 서산오토밸리, 서산인더스트리밸리, 대죽일반산업단지,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서산 바이오헬빙연구특구, 성연농공단지, 고북농공단지, 수석농공단지, 명천농공

단지 등)에는 많은 환경오염배출업체가 입주해 인근 지역주민 및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대산화학공단과 대죽일반산업단지는 물론 지곡의 서산오토밸리 내 입주기업, 부석면에 진행되고 있는 현대모비스 자동차 주행시험장, 고북면의 콘크리트 관련 업체 및 도계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이제 서산시환경대책위원회의 활동으로 수면 위로 오를 전망이다.

김준수 위원장은 “서산시환경대책위원회는 환경오염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이를 바로잡고 대책(대안)까지 세워 더 이상의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한편 서산시환경대책위원회는 다음달 11월 29일 오후 2시 새롭게 터전을 잡은 서산시자원봉사센터 다목적실에서 창립식을 갖고 위원회의 활동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가금현 기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문치과병원 청소년 복지 ‘선도’ 업무협약 체결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원장 박영의)과 문치과병원(원장 문은수)는 19일 도내 청소년 구강건강증진 기여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청소년 구강건강증진 기여를 위해 체결됐으며,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의 임직원들을 비롯한 시·군 청소년 유관기관장 사자들도 건강검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현재 의료법인 한아의료재단 문치과병원은 병원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천안개방교도소, 열린성애병원, 천안·아산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진료를 실시하

고 있다.

또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우유급식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 서고 있으며, 향후 도내 학교 박 청소년 및 위기가정 청소년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박영의 원장은 “도내 의료기관과의 협약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진흥원이 되길 바라고, 주후 지속적인 연계로 도내 청소년 및 지도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원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가금현 기자

충남도, 14개사 2000억 유치...경제 활성화 ‘밑불’

21일 합동투자협약 체결...5개 시군 28만㎡에 공장 이전·신설
신규 고용 730명...연간 생산효과 3437억·부가가치효과 954억

충남도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5개 시군에 14개 기업을 유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밑불을 지폈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동일 보령시장 등 5개 시·군 단체장, 김승기 그루비코스메틱 회장을 비롯한 14개 기업 대표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14개 기업은 5개 시·군 산업단지 28만 201㎡의 부지에 총 1997억 원을 투자한다.

이들 기업 중 8개사는 공장을 신증설하고, 6개사는 이전한다. 이에 따른 신규 고용 인원은 총 730명이다.

보령 웅천산업에는 샴푸·린스 업체 그루비코스메틱, 철근 업체인 정광스틸이 새롭게 터를 잡는다.

그루비코스메틱은 9039㎡의 부지에 110억 원을, 정광스틸은 같은 산단 1만 973㎡의 부지에 60억 원을 투자해 인천과 전북 군산에서 각각 공장을 이전한다.

자동차 부품 업체인 에스비정공은 50억 원을 투입해 보령 주포제1농공단지 9718㎡의 부지에 공장을 증설



한다.

아산에는 LED 조명기구 업체 에이치비세계로와 내장형 메모리 업체인 바른전자, 작업복 업체 지벤에프앤씨, 안전화 업체 지벤세이프티, 의료기기 업체 미래메디엔텍 등이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한다.

에이치비세계로는 508억 원을 투자해 음봉면 9만 5630㎡의 개별입지에 인천 공장을 이전하고, 바른전자는 250억 원을 투자해 염치일반산업단 2만 2625㎡의 부지에 경기 화성 공장을 이전한다.

지벤에프앤씨는 영인면 개별입지

3만 76㎡에 163억 원을 투자하고, 지벤세이프티 역시도 영인면 개별입지 2만 7187㎡에 145억 원을 투자해 각각 경기 고양과 부천에 위치한 물류센터를 이전키로 했다.

미래메디엔텍은 음봉면 개별입지 1만 7169㎡에 110억 원을 투입해 공장을 신설한다.

계룡 제2산업단에는 스테인리스 강관 업체 길산스틸이 6883㎡에 89억 원을 투자하고, 위생용 종이 제품 및 식기 세척기 업체인 자우버가 3689㎡에 72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증설한다.

/박순신 기자

가로림만 해양정원 기원, 가로림픽 열린다

서산시 가로림만의 갯벌 올림픽 가로림픽이 오는 28일 열린다.

가로림픽은 국가해양정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기원과 가로림만 갯벌 해양생태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천혜의 가로림만 생태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가해양정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기원한다는 계획이다.

행사는 중리 어촌체험마을 앞 갯벌에서 뱃배타기, 갯벌피구 등이 열릴 예정이며, 참여인원은 시민 SNS서포터즈 등 시민 선착순 30명을 모집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로림픽을 통해 시민과 지역어업인 등이 함께해 국민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성진 기자

현대제철, 하반기 교육기부 사회공헌활동 개강

당진관내 20개교 2350여명 대상 실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15일부터 관내 초·중·고교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교육기부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한다.

교육기부 사회공헌활동은 관내 20개교, 학생 23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초등학생에게는 주니어공학교실 실습키트를 제공하고, 중·고교학생들에게는 일일교사특강을 실시한다.

주니어공학교실은 과학 이론과 실습 키트를 활용해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생활 속 과학의 원리를 주제로 실습하는 교육 사회공헌활동이다. 관내 6개 초등학교 6학년 3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하반기 주니어공학교실 주제는 연료전지, 환경과 소재 공학으로 구성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초등학생과 학교를 위해 기존 직원 강사가 직접 수업하던 방식에서 해당학교 교사 수업방식으로 변경해 진행한다. 당진제철소는 실습키트 2천만원 상당을 구매해 전달한다.

일일교사특강은 합덕제철고, 호서고 등 14개 중·고교 19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대제철 회사소개를 시작으로 꿈과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는 미래 비전을 전달한다. 특강

은 직원들이 강사로 나선다. 임직원 강사는 경험담을 토대로 미래 진로 선택 방법, 사례를 통한 노하우를 공유한다. 일일교사특강 강단에 오르는 직원 강사는 현장 경험에 풍부한 직원부터 박사과정을 취득한 직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는 임직원들로 구성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직원을 대상으로 선별했다. 일일교사 하반기 첫 특강은 송산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8일 실시한다.

특강에 나선 당진제철소 직원 강사 이윤범 사우는 “꿈을 키워주는 학생들에게 좋은 이야기와 더불어, 제 아이 또래의 학생들에게 아빠와 같은 마음으로 현실적인 진로고민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더 큰 꿈과 미래를 설계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한편, 당진제철소는 다양한 교육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다. 당진장학회 장학금 기탁, 아동 심리 미술놀이, 진로 체험, 제철소 탐방, 행복기움 요리교실, 생존 수영 등 다양한 교육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가금현 기자

대전시, 내년 대전UCLG 총회 도시외교 본격 행보

10월 23일~11월 5일 유럽·아프리카 등 4개국 5개 도시 방문

대전시가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이하 UCLG) 성공 개최를 위해 세계 무대에서 본격 외교활동을 벌인다.

시는 허태정 시장이 내년 UCLG 총회 업무협약 체결 등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유럽 및 아프리카 공무 국외출장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출장은 UCLG 사무국과 업무협약 체결 등 내년도 대전 총회에 세계 각 도시에 참여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 주요 일정이지만, 일정 사이 트램 건학, 도시재생 시찰 등을 비중있게 배치해 그동안 추진했던 민선 7기 핵심사업을 최종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허 시장은 우선 첫 공식일정으로 25일 벨기에 브뤼셀 UCLG 유럽지역본부를 방문한다.

유럽 4개국 13만여 지방자치체인 CEMR(Council of European Municipalities and Regions)을 주관하는 프레데릭 발리에르 사무총장을 만나 2022 대전 UCLG총회 소개와 과학도시 대전을 홍보할 예정이다.

26일에는 프랑스 보르도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시설인 다윈을 방문해 원도심 개발에 대한 정책설계를 다듬고, 27일에는 트랩노션 시찰과 트랩과 버스 등 대중교통 통합 운영상황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허 시장은 에밀리아 사이스 사무총장과 △UCLG 주제, 프로그램과 회원도시 참가 홍보 및 후원 대상 결정 △UCLG 총회 개최 비용 등 재정부담 △UCLG 총회 운영관련 법률적 사항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도 대전 UCLG총회의



전체적인 윤곽이 확정될 예정이다.

29일에는 바르셀로나 트램, 메트로, 버스 등을 통합운영하고 있는 트램 운영기관(ATM)을 방문해 각 교통수단과의 환승과 요금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고, 30일에는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로 꼽히는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를 진행한 스마트 그린 기술기반 도시 재생지역을 방문한다.

유럽출장이 끝나면 아프리카 모로코로 이동하여 UCLG 총회 참여와 대전시 홍보를 이어간다.

내달 1일에는 모로코 라바트 에 있는 UCLG 조직의 수장인 모하메드 부드와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후 아프리카 지역본부를 방문해 대전 UCLG총회와 대전을 소개하고, 아프리카 지역도시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할 예정이다.

2일과 3일은 모로코의 수도인 라바트의 아스마 랄루 시장과 북아프리카 최대의 도시인 카사블랑카의 압델라 지즈 엘 오마리 시장을 만나 면담과 현지인터뷰 등 대전 UCLG총회와 대전시 홍보 활동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정민준 기자

개심사, 두 번째 ‘국화전시회’ 열려

보물터의 사찰 개심사가 올해 두 번째 국화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는 ‘꽃이 피니 마음이 열리네’라는 제목으로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열리게 된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한복명상 이남례 한복전시회(29일부터 3일) ▲우전 마진식 개인전 ▲내포수석문화회 수석초대전(11월 2일부터)이 준비돼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국화향에 취하면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게 됐다.

개심사 국화전시회 사진 공모전도 열리며, 작품을 11월 30일까지 이메일 whoami555@daum.net로 보내 주면 된다.

발표는 12월 5일 개별 통지 예정이다.



전시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순신 기자

귀농귀촌 전 흥성에서 미리 살아보세요

흥성군이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프로그램을 운영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21일 군에 따르면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민에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영농체험, 지역탐색, 지역민과의 교류 등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탐색 과정으로 인기가 높다.

군은 지난 4월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지금까지 총8명이 참가한 가운데 5명이 수료를 마치고 현재 3명이 참가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부부 참가자 2명이 흥성으로의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5명의 참가자가 거주지, 농지를 알아보는 등 귀농귀촌의 계획을 밝혔다.

군은 참가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당

초 10월까지였던 프로그램을 11월까지 한달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한 참가자는 “처음에 귀농을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했는데, 미리 시골살이 체험을 통해 몸으로 부딪히며 알게 되어서 계획에는 귀농귀촌 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 같다”며, 흥성군에 강한 정착 의지를 보였다.

윤길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귀농귀촌 후 농촌 생활에 대한 괴리감 때문에 탈농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탈농을 방지하고 더불어 흥성군 귀농귀촌 유지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내년에도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지속할 예정이니,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성진 기자